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사노라면’과 ‘화장을 고치고’



안동일_ 동국대 철학과 77학번. 뉴욕동아일보 기자, 민주일보 주미특파원, 뉴욕코리아TV 뉴스앵커·방송위원,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상임홍보위원(현)

세월이 우수와 같다고 하더니 벌써 긴급조치가 발효된 지 30

년이 되어 간다. 믿어지지 않는다. 눈 세 번 깜빡한 것 같은 느낌인데... 하긴 요즘 들어 부쩍 내 자신이 “이젠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가장 어린 축에 속했고 어른, 선배들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젠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보다 어린 후배들이다.

어제만 해도 조카뻘의 젊은이들과 어울려 노래방에 갔다. 나는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태생적으로 음정 박자에 둔한 편이지만 하도 불러대 혼한 말로 마이크 발로 속일 만큼은 부르는 편이다. 요즘 내가 자주 부르는 레파토리가 ‘화장을 고치고’와 ‘너를 위해’라는 곡이다. 별로 신곡도 아니건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노래도 아세요?” 하며 조금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봐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노래, 특히 유행가 작사자들이야말로 언어의 마술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래들의 가사들은 그야말로 가슴을 치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그 곡들을 이미 애창곡으로 지정해 놓은 터.

“우연히 찾아와 사랑을 던져 놓고 받기만 하게 했던 그, 그래서 미안해지는 나. 그래도 다

시 만나면 모질게 따지고 싶은 그. 힘든 세상에 혼자 남겨 놓고 연락 한번 없던 그. 보잘 것 없지만 그땐 몰랐던, 어려서 몰랐던 사랑을 받아달라”는 여가수의 절창!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내 곁에 있어준 너.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 걸 지켜 보는 너. 그건 전쟁같은 사랑이라고 규정하면서 제대로 살기위해 너를 붙잡아야 하지만 난 위험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떠나야 한다”는 호소력 있는 남자 가수의 절규! 이것이야말로 긴조리는 괴물을 열아홉 어린 나이에 만나 인생의 궤적이 한없이 달라져야 했던, 그리고 30년 가까운 세월을 돌아 이땅에 다시 온 내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싶은 호소인지도 모른다.

어제 노래방에서도 이런저런 상념 속에 이 두곡을 불렀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사노라면’을 들었다. 예전에 내 인생의 궤적을 바꾸어 놓았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인데... 숨죽여 불렀던 그 노래가 요즘엔 노래방의 새 애창곡 레파토리에 들어 있었다. 젊은 사람들의 취향으로 리메이크되어 있었지만 멜로디와 가사야 달라진 게 없으니 옛 감흥이 그대로 살아날 밖에...

1978년 봄, 우리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서 우리 과로 홍길동처럼 편입학 해온 영표라는 웬수(?) 같은 녀석에 의해 준영과 남석 그리고 나는 어떤 모임에 끌려(?)갔다. 가보니 알만한 녀석들이 몇몇 있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고교 동창 노일현도 그 모임에 있었다. 그날 일현이가 얼굴이 시뻘게져서 부르던 그 노래가 바로 ‘사노라면’이었다.

그 노래 이외에도 녀석은 ‘상록수’와 ‘차들이 내몸을 멋지게 불러 제겼는데 난 그 노래들에 빠져서 모임의 멤버가 되었다. 얼마 후 부처님오신 날, 우리는 여의도 광장에서 유신헌법이 철폐돼야 한다는 유인물을 뿌렸다. 박정희라는 단어는 자연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 앞에 항상 붙는 경칭이라고 생각했던 순진한 소년의 변모치고는 엄청난 변모였다.

그 이후 몇 차례 그런 유인물들을 만들어 몰래 뿌리면서 비장한 투사처럼 은밀히 만나고 목소리를 깔고 주변을 살피며 이야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지금 생각해 보니 좌충우돌 했던 모양이다. 다른 학교의 노장 선배들이 와서 자중하라고 충고할 정도였으니. 황인성 선배 같은 이도 그때 만났는데 사직공원 위쪽 돌담 위에 앉아 빔돛도록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새롭다.

아니나 다를까 여름방학이 되기 전 우리 그룹내 몇몇이 잡혀갔다. 영우 형, 재완이, 호성이 잡혀 갔는데 아무리 족쳐도 유인물 건은 나오지 않자 그냥 목요회라는 서클을 만들었다는 죄목에 긴조9호 위반으로 실형들을 살게 되었다. 그때의 참담함과 미안함이란...

남은 우리는 불뚱이 어떻게 될지 몰라 얼마간 피신해 있기도 했는데 잡혀간 학우들이 입을 굳게 다물었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 2학기 들어서자 우리는 다시 목소리를 깔기 시작했다. 그땐 교련 김열이란 게 있었다. 대학생들이 무슨 군인처럼 충성을 맹세하면서 총을 메고 열병, 분열, 사열을 해야 했으나...

또 그때 문리대 학장으로 내정된 물리학과 교수님 한분이 도봉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자살로 발표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의문투성이였다. 학보사 기자였던 나는 학교 신문에 의문을 따지려 했는데 여지없이 삭제되고 할 수 없이 유인물로 방향을 잡아야 했다. 교련과 김열 반대 그리고 교수 의문사문제 등을 담은, 그리고 결론으로 유신과 긴급조치는 철폐돼야 한다는 유인물을 도서관에서 운동장을 향해 뿌리는 내 모습을 누군가 보고 그때 학교에 상주했던 정보과 형사에게 즉시 신고를 했던 모양이다. 그가 누군지 짐작은하고 있다.

다음날 새벽, 집에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 나는 긴조9호와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했다. 준영과 내가 단둘이 한 일로 몰아가기로 했고 실제로 두 사람만 실형을 받았다. 유인물 한 장 뿌렸다고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아직 만 스무살이 되지 않았기에 소년수로 지내야 했던 1년 남짓의 구치소의 생활은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한, 지평을 넓힌 경험이었다.

그 시기가 향후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한 소수로, 영원한 비판자로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비장감과 처연함이 동시에 들었던 것이다. 그 같은 처연함은 나를 엉뚱하게도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게 했던 연유가 되기도 한다. 구치소에서 해외의 풍물을 그럴싸하게 담은 이병주의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읽으면서 나는 생전 외국 구경은 못하겠구나 생각하니 그렇게 처량해 질 수 없었다. 그땐 유신정권이 그렇게 강고해 보였다.

그런 처량함은 그 후 우연히 다가온 미국 여행 기회를 택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20여년을 살게 했다. 일가 어른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연수 형식으로 미국에 갔는데 그때가 81년 11월이었다. 그 사이에 일들이 많았다.

79년 출소 직후 터진 10.26사건! (형무소에 있을 때 전기불이 들어 올 때마다 깨져라, 깨져라 했는데 막상 깨지자 조금은 허탈했고 어안이 병병했던게 사실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

그 후 긴조 동지들이라면 누구나 대동소이하게 겪었던 서울의 봄, 복학, 계엄해제 투쟁, 그리고 광주항쟁. 수배, 도피, 자진출두, 훈방, 제적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서슬 퍼런 시절에 나는 동료들과 참여불교운동을 했는데 내가 미국으로 떠난 직후 들은 우리 그룹이 사회주의 변혁을 꾀하는 불온단체로 몰려 참여자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멤버의 한사람이었던 젊은 스님이 지방에서 불온자로 연행되면서 바람에 지니고 있던 서적과 자료들 때문에 촉발된 사건이었다. 워낙 내용이 없었기에 당초 100여명이 시경 남영동에 연행됐지만 3명만 구속되고 말았다. 하지만 주요 자금이나 자료의 출처가 모두 미국에 있는 나에게 전가됨으로써 귀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미국 뉴욕에서 불법체류자로서 전전공궁하며 지내야 했다. 인생유전 새옹지마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셈. 그 후 현지 사정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동포신문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쪽 언론인이라 칭함을 사용하고 있다.

87년 3월, 언론재단이 주최한 해외 언론인 세미나에 초청돼 6년 만에 귀국했는데, 당시 불교 사회주의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친구들 모두가 석방 복권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반갑게 만난 친구들은 귀국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해외에 더 있으면서 당시 불기 시작한 북한 바로알기에 적극 나서라고 권유했다. 듣고 보니 그럴 듯 했고 의미있는 일이었다. 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신상진, 지금은 미군문제 전문가가 된 조성렬이 그들이었다. 조성우 선배도 한몫 거들었다. 그래서 보름일정을 마치고 뉴욕에 돌아가자마자 시민권 신청을 했고 89년 9월부터는 미국인이 되었다.

그 이후의 내 인생 역정은 다른 기회에 전하겠지만 아무튼 네 차례의 북한 취재 활동과 쿠바, 니카라과 취재 등을 펼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흥미진진한 삶을 열심히 살았다. 북한의 문을 처음 노크한 때가 88년 겨울, 내 나이 29살 때였다. 88올림픽과 89평양축전을 모두 취재한 유일한 기자, 김일성주석과 기념촬영을 한 동포기자, 통일의 꽃 임수경의 평양 행적을 발표해 서울의 지가를 올렸던 기자, 나에게 따라 다녔던 수석어들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고

초도 많이 겪어야 했다. 그래서 긴조와 뿌리를 같이하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독수리 여권을 가진 미국인으로 살았다. 그랬던 미국인이 다시 한국인이 된 것은 바로 '상록수' 노래 때문이었다.

2003년 2월말, 취재차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울려 퍼진 '상록수' 노래는 온몸의 모공이 다 열리는 듯한 전율과 감동을 던져 주었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이른바 운동권 노래, 친구들과 숨죽여 불렀던 그 노래가 정확히 4반세기가 지난 시점에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가. '영원히 소수로 살아야 하고 핍박 받아야 하는구나' 자조하면서 외국으로 나갈 기회가 생기자 냉큼 그 길을 택했던, 그래서 과정이야 어쨌든 미국인이 되어 있는 나를 그 노래는 돌아보게 했던 것이다.

그때 웬지 김구 선생의 일화가 떠올랐다. 독립국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부청사의 문지기라도 하겠다고 평소 공언한대로 선생은 상해 임시 정부가 수립되자 그곳에 찾아가 문지기를 자청했다. 그가 누군지 잘 몰랐던 당시의 총무부장은 그러라고 했고 며칠 문지기로서 일했던 것이다. 하루는 청사 앞을 쓸고 있는데 앞을 지나던 내무총장 도산 선생과 마주쳤다.

“아니, 이게 누군가? 창수 아닌가?”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10대 후반에 동학혁명에 가담해 이름을 날렸고 그 후에도 105인 사건 등 독립운동 사건에 연루돼 몇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활동가. 이렇게 해서 그날로 김구 선생은 자신은 극구 사양했지만 경무부장직을 맡게 된다.

누가 알아주거나 불러주지 않더라도 새 역사를 연 이 땅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부터 국적 회복에 착수, 2003년 7월 영구 귀국을 했다.

지난 1년 9개월의 새로운 세월 동안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힘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일현이 즐겨 불렀던 노래, 어제 노래방에서 다시 들었던 그 노래는 나에게 힘을 던져준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그리고 실제 우리 나이쯤 되면 아무리 궁벽하다 해도 좋은 날이 분명히 있었다. 경험으로 아는 진리 아닌가.

그 무시무시했던 긴조, 헌법보다 한 뼘이나 위에 있었던 긴조, 그런 긴조도 박물관용이 되어 이제는 이처럼 옛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쏟은 땀방울, 핏방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30년 뒤 긴조 60주년, 그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무렵에

도 노래방은 존속할 텐데 그때 내 18번 레퍼토리는 어떤 노래가 될까?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또 받게 해달라 떼쓰는, 전쟁처럼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역설적인 내용의 노래보다는 더 젊고 더 힙찬 노래가 되었으면 싶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살 수 있으려나?

동지들, 건강합시다.